

'사 11'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1판1쇄 | 발행 2006. 12. 30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 Tel 02)901-7160~7 · Fax 02)901-7088

주 관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 Tel 02)901-7160~1

편집감수 | 남성욱 · 오일환 · 전영선 · 허윤

편집기획 & 제작 | (주)경향C&L · www.kup365.com · Tel 02)733-0365

북디자인 | DesignB612

자료지원 | 연합뉴스 · 민족21

* 본 화보집에 실린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내용이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통일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북한주민의 실생활에 대해 알게 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이 자료집(화보집 타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보집에서는 북한주민의 생활모습을 '도시·농촌·경제' '학교생활' '명절' '일상생활'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분류, 그 일상을 전달할 수 있는 사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부 '도시·농촌·경제'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도시와 농촌 풍경 및 경제과학화 노력 등을 담았습니다.

제2부 '학교생활'에서는 정규학교 수업장면을 비롯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중심으로 한 예술소조활동 등과 특수학교인 예체능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 '명절'에서는 민속명절과 기념일, 사회주의 명절의 의미와 명절날에 이뤄지는 각종 행사내용을 실었습니다.

마지막 제4부 '일상생활'은 평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탄생과 결혼 등 주민의 생애, 사상학습생활·생활경제, 그리고 주택·문화시설·종교·병원과 휴양소 등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과 설명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CONTENTS

발간에 즈음하여 3

Part 1. 도시·농촌·경제

1-1. 도시 6

1-2. 농촌 16

1-3. 경제 25

Part 2. 학교생활

2-1. 취학 전 30

2-2. 학교 32

2-3. 방과 후 활동 35

2-4. 단체생활 40

Part 3. 명절

3-1. 민속 명절 46

3-2. 사회주의 명절 49

Part 4. 일상생활

4-1. 생애 58

4-2. 사상학습생활 61

4-3. 생활경제 66

4-4. 직업세계 75

4-5. 주택 78

4-6. 문화시설 81

4-7. 종교 89

4-8. 병원·휴양소 9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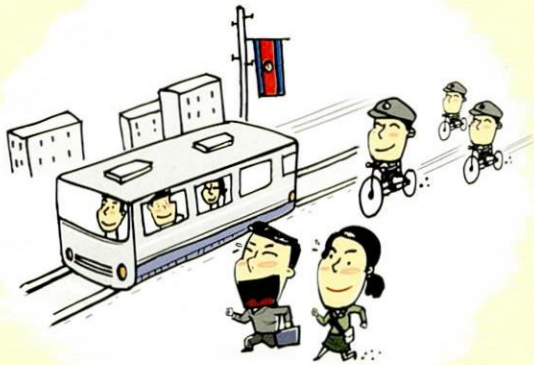
도시·농촌·경제

북한은 광복이후 행정구역을 약 50여 차례 개편해 왔다. 그 결과 순우리말 행정구역 명칭이 많아졌으며, '노동자구'와 같은 특별한 행정구역이 생겼다. 2000년 이후에도 행정구역 개편은 몇 차례 더 진행되어 개성공업지구가 새로 생겨났으며, 직할시가 4개에서 하나로 축소되었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북한의 농촌은 최근 영농과학화 등이 강조되면서 대대적인 농업관리개선조치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북한경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학화와 현대화인데, 이는 낙후된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다. 과학화와 현대화의 상징으로서 컴퓨터를 통한 최신정보 습득과 과학기술 육성책 아래 IT산업 등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③



1-1. 도시



북한의 도시를 대표하는 곳은 단연 평양시이다. 우리의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직할시가 한때 평양시를 비롯하여
4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평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일반
시보다 조금 큰 '특급시'나 일반 시로 축소되었고 평양만이
유일하게 직할시로 남아 있다. ⑤

도시의 공장

'고난의 행군' 시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의 공장들이 최근 경제회복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면서 합작이나 합영공장이 많이 늘어났다.



북·중 경제 교류의 대표적인 성과로 선전하는 대안천선유리공장 준공식



평양구두공장

도시의 노동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일한 만큼 가져가는'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와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을 통한 독립채산제 강화가 골자인 노동현장에서의 변화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있는 경련애국 사이다 공장

도시풍경

평양은 최근 사회주의 '혁명의 수도'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대대적인 외관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의 아파트 단지



도시상점



개선문을 오가는 평양시민들



평양외곽의 스케이트장



조선중앙동물원의 코끼리 쇼 모습

평양시에는 각종 주요 기관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육·문화 시설들이 이념적 상징 건축물과 함께 역사도시로서 역사유적지도 많이 있다.



평양시 도심부 전경



평양시내를 가로지르는 청류교

평양의 고층건물



개선문

고려호텔



주체사상탑



양각도호텔



평양보통강호텔

대동강에서 바라본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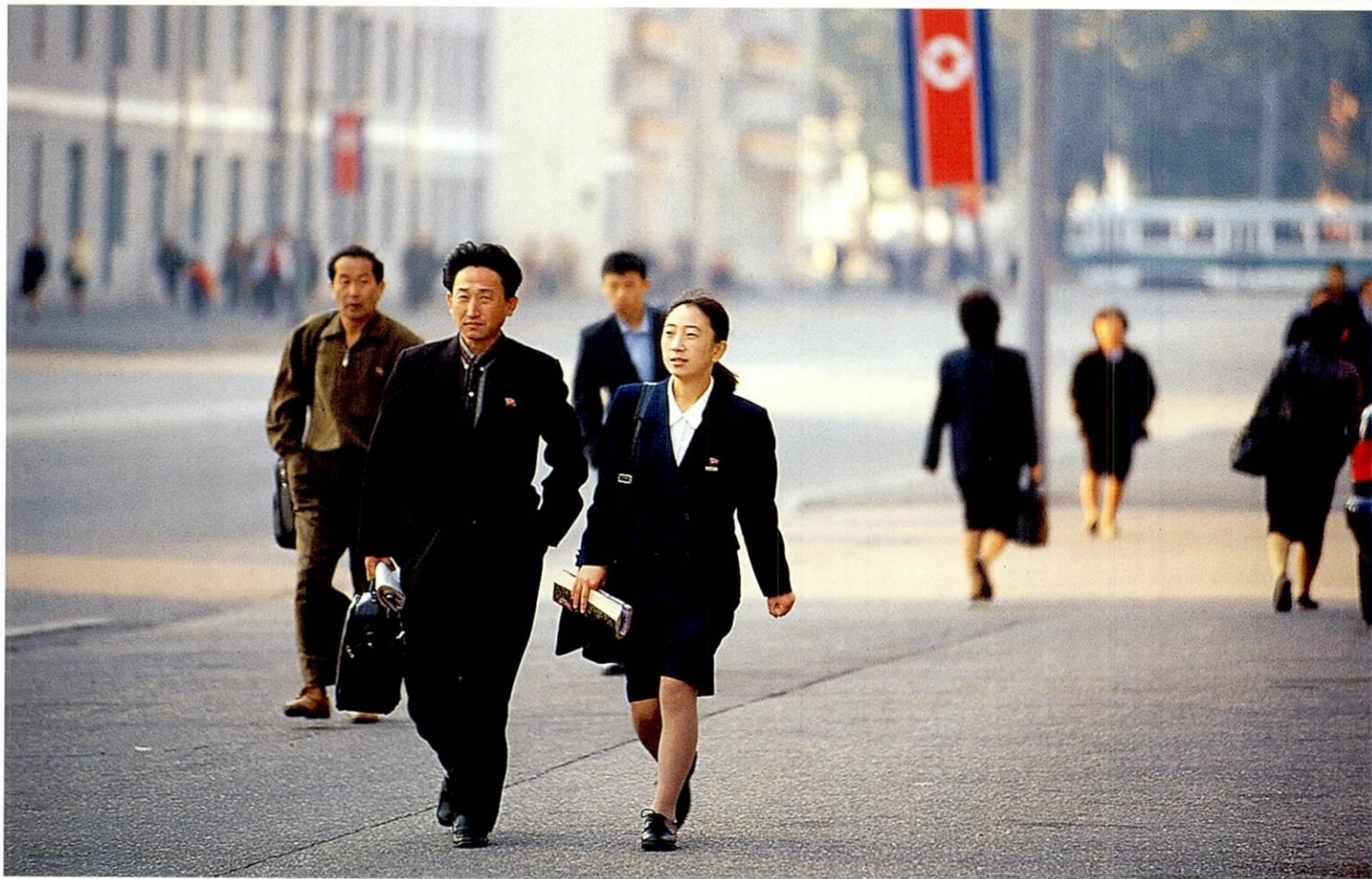


평양의 출근길 풍경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평양시민들의 출근 모습



지하철

평양의 지하철은 1973년 9월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식물로 유명하다. 지하 깊숙이 건설되어 유사시에 대피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지하철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며 출퇴근 시 2~3분, 평시 5~6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평양지하철 부흥역



평양지하철 개선역 입구

버스

평양은 서울과 비교할 때 도시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교통은 그리 혼잡하지 않다. 하지만 출퇴근 러시아워 때 대중교통편은 만원이다. 최근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2층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에 오르는 주민들



도시교차로



육교 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승합차와 버스

자동차

2004년 8월 남포공단 공장에서 출시된 '휘파람'이라는 이름의 자동차는 이탈리아 피아트 '씨에나' 모델을 현지조립 형태로 만든 것이다. 2004년 '평양국제박람회'에는 신 모델 '휘파람 2'와 픽업트럭 '빠꾸기 3'이 선보였다.



승용차 휘파람



전차

평양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볼 수 있다. 궤도전차는 주택밀집지역인 통일거리·광복거리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무궤도 전차는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한다.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전차

자전거



출퇴근 수단과 간단한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자전거

공항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평양공항

1-2. 농촌



북한의 농촌에서는 최근 농업관리 정책개선에 따라 농업과학화를 진행하면서,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농업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 농업생산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농업문제를 인민생활 안정과 경제력 회복의 선결과제로 제기하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㉞

북 협동농장의 봄



봄채소 양모협동농장



농사준비에 바쁜 농민의 모습



봄철 모내기준비에 나선 협동농장원들

북한에서 먹거리는 협동농장과 국영 농·목장에서 생산된다. 협동농장의 생산조직은 작업반과 분조가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 협동농장검사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농장원총회와 농장원대표자회의가 있다.

모내기



北 협동농장의 여름



대성협동농장 남새밭

北 협동농장의 가을



토지정리사업

北 협동농장의 겨울



지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에 거름을 주고 있는 장면



작업에 앞서 선전원의 연설을 듣고 있는 협동농장원들



퇴비를 이용한 지력강화 모습

특수작물재배

농업분야의 생산증대와 함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농업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작목법을 연구하는 모습

목장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교시 이후 풀먹이 동물 사육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념목장 제2축산분장에서 기르는 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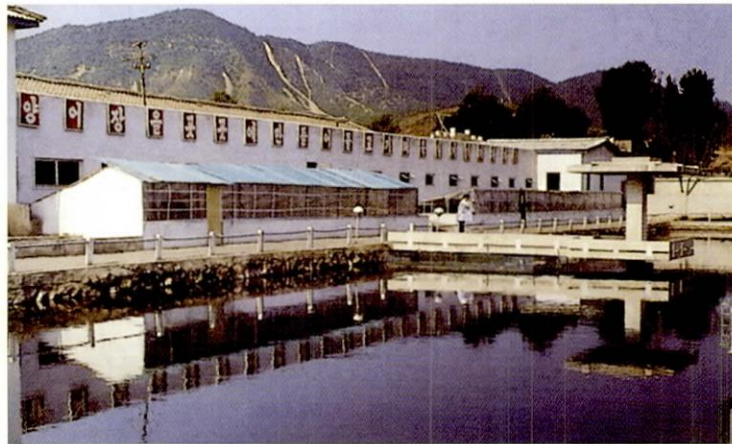


대체 먹거리 마련을 위해 건설한 목장

양어장

대체먹거리로 열대메기를 비롯한 민물고기 양식사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전국에 건설된 한 양어장의 모습



메기 양식장

北 타조목장 · 닭공장

먹거리 개선을 위하여 기초식품공장의 증설, 쌀농사 이외의 대체작물로서 감자농사의 확대, 염소나 타조목장 건설, 열대메기 같은 양어장 건설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닭공장(상)과 타조공장(하)

감자농장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적극 권장하는 작물이 감자이다. 감자는 고산지대의 다수확 작물로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도 적합하다. 감자농사 장려정책에 따라서 재배면적도 크게 확대되었고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감자농사의 대명사는 량강도 대흥단군이다.



감자혁명의 본보기로 건설된 대흥단군협동농장

1-3. 경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북한은 200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회복전략을 추진하면서 전력·석탄·농업·기계금속·철도운송 등을 5대선행 부문으로 지정하고, 이 부문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 부문들의 연쇄 반응적인 경제회복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예산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낮은 경제발전 수준을 통해서도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❸

경제선전대 활동

농장이나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대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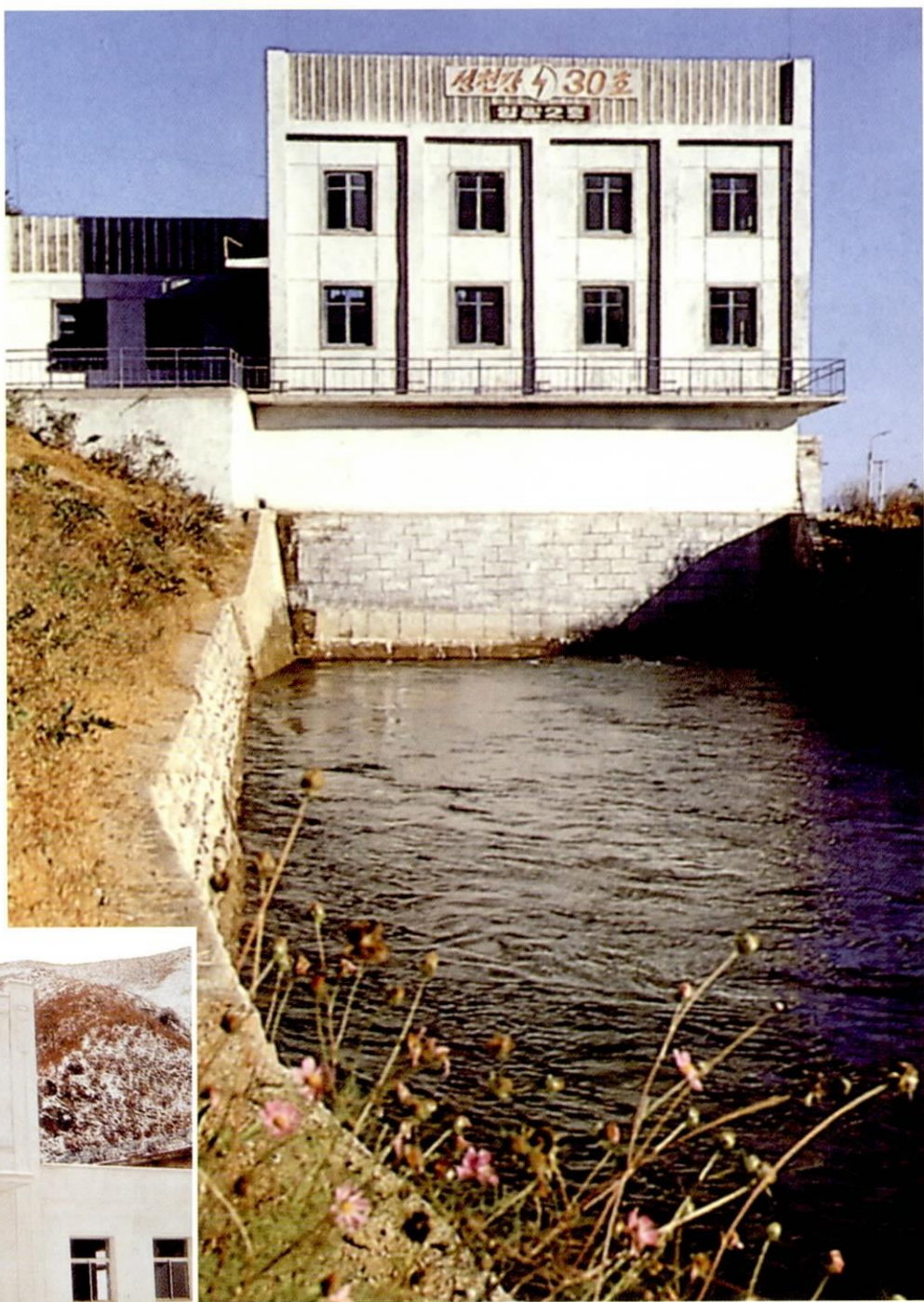
도로건설에 나선 노동자들



여성 선전원이 노동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는 장면

발전소

전력난^電을 경제발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이다.



중소형 발전소



은흥청년발전소

경제 과학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분야에서 이익을 최대화하지는 '실리사회주의'.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문 전체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현대적 과학기술'의 도입과 '품질감독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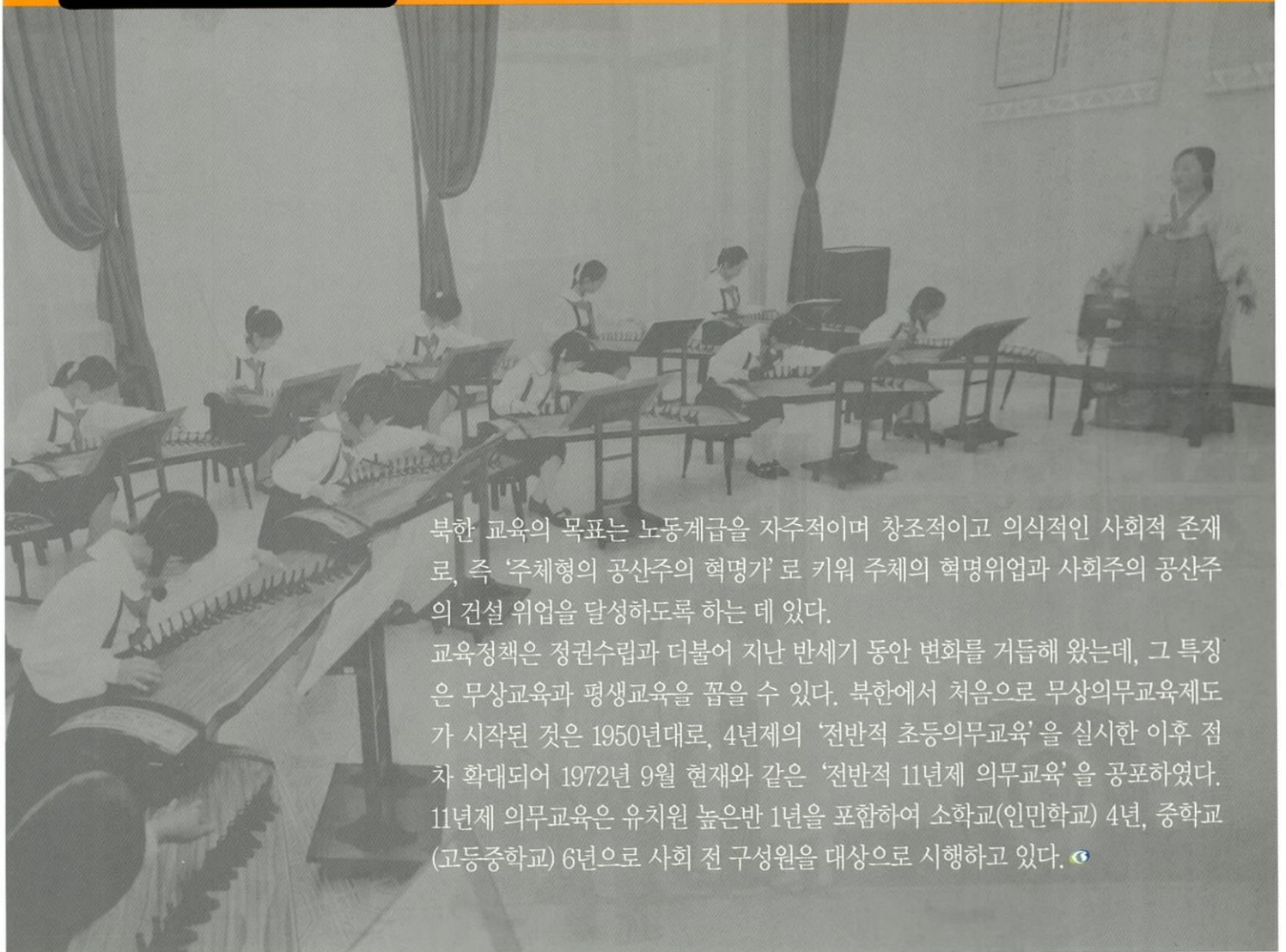
인민경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화 · 현대화




정보화 관련 산업현장

2

학교생활



북한 교육의 목표는 노동계급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 즉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 주체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수립과 더불어 지난 반세기 동안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그 특징은 무상교육과 평생교육을 꼽을 수 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무상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로, 4년제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72년 9월 현재와 같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공포하였다.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포함하여 소학교(인민학교) 4년, 중학교(고등중학교) 6년으로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1. 취학 전



북한에서는 취학 전 교육이 중시되는데, 그 이유는 집단적이고
규율있는 생활과 교육을 통해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지적으로
지혜로우며, 육체적으로 튼튼한 어린이로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은 취학 전인 '유치원 높은반' 부터
시작하는데,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는 1976년 4월 공포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서는 출생
3개월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제도화하였다.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양' '지적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 등인데 이
가운데서도 노래와 춤, 그림그리기와 만들기 등의 정서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⑤

탁아소

갓난 아기들은 젖먹이반에 들어간다. 생후 10개월경이 되면 젖먹이반을 끝내고 젖떼기반에 들어간다. 생후 18개월에 젖떼기반을 마치면 어린이반에 들어가고, 만 2세가 되면 교양반으로, 3세가 되면 유치원 준비반으로 올라간다.

김정숙탁아소의 아이들



유치원

유치원은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으로 되어있다. 이중 높은 반 1년은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만 4세가 되면 탁아소를 졸업하고 유치원 낮은반을 거쳐 들어온다. 유치원에서는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몸에 익힌다. 유치원의 일과는 노래와 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실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잠잘 때, 잠에서 깨어날 때, 모일 때 등 모든 동작이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진행된다.

창광유치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2-2. 학교



학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학교 4년 · 중학교 6년 · 대학교 4~6년제로 운영된다. 북한에는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학과공부와 학교생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소학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학년 때 배정된 담임선생님이 졸업 때까지 지도한다. ⑤

소학교 (인민학교)

어린이들은 만 6세가 되면 소학교에 들어간다. 몇 년 전까지는 '인민학교' 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소학교' 라고 부른다. 한 반은 보통 30~4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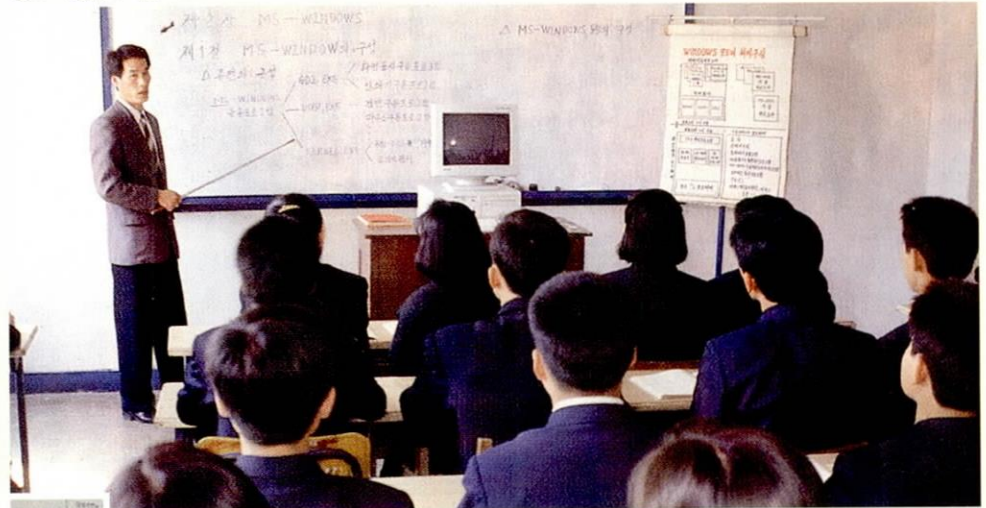
김성주소학교에서의 입학식 장면



중학교 (고등중학교)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중학교는 6년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것과 같다. 중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며, 별도로 입학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별로 진학한다.

중학교의 컴퓨터 이론교육



특수학교



음악 명문학교로 널리 알려진 평양률곡중학교 학생들의 노래연습 장면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 여자축구 선수들이 헤딩연습을 하고있는 장면

혜산예술전문학교 연필화 창작수업



2-3. 방과 후 활동



학생들은 방과 후에는 소조별로 예체능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선택, 소조별 활동을 한다. 소조활동은 자신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음악·미술·체육·무용·컴퓨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④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

예술계통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는 금성제1중학교·금성제2중학교가 유명하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학생소년궁전에서 예술소조활동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는데, 교사들의 수준도 높고 교육시설도 현대적이어서 진학 선호대상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 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 ②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음악소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무용소조(좌)와 수예소조(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



학생소년궁전 컴퓨터소조

최근 컴퓨터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소년궁전에도 컴퓨터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소년궁전의 컴퓨터소조 운영은 소학교와 중학교의 컴퓨터와 과학기술교육의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도별 2~3개 '본보기학교(시범학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컴퓨터 수재 양성기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소년궁전의 컴퓨터소조



인민대학습당 외국어학습실

각종 책을 빌리는 것은 물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종합학습시설이다.



외국어 듣기수업 장면

인민대학습당의 외국인 교사



2-4. 단체생활



북한의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모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소학교의 경우 여름에는 흰색 셔츠를 기본으로 여학생은 진한 청색 주름치마와 머리에 빨간 리본을 하고, 남학생은 진한 청색 바지를 입는다. 겨울에는 상의 위에 진한 청색 자켓을 입는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흰색 셔츠를 기본으로 여학생은 진청색 점퍼스커트, 남학생은 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상의 위에 진한 청색 자켓을 입는다. 학교생활에서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체생활인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예외 없이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 가입해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단체생활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중학생(고등중학생)의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④

교실



평양시내의 한 소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학기 첫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

중학교 성적게시판



여자중학교에 게시된 학급별 성적게시판

수영활동



평양동흥소학교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장면

소년단 입단식

북한에서는 소학교 과정동안 모두 소년단에 입단한다. 소년단 입단식은 모범학생 등이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우선적으로 입단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년단 창립일(6월 6일)에 학교별로 입단한다.

조선소년단 입단식 장면



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4세부터 3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청년동맹 창립기념 중앙보고대회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연습

매스게임 '아리랑'을 앞두고 연습중인 여학생들



北 영웅학교


항일혁명투사나 6·25전쟁과 사회적인 모범인물의 이름을 딴 학교로는 차광수대학(구 신의주제1사범대학)·장철구대학(구 평양상업대학)·최희숙대학(구 함흥제1교원대학)·마동희대학(구 청진교원대)·오중흡대학(구 청진제1사범대)·조옥희대학(구 해주교원대학)·김제원대학(구 해주농업대학)·계응상대학(구 사리원농업대학)·리수복대학(구 순천화학대학)·정준택원산경제대학(구 원산경제대학)·한덕수경공업대학(구 평양경공업대학) 등이 있다.



학교가 배출한 영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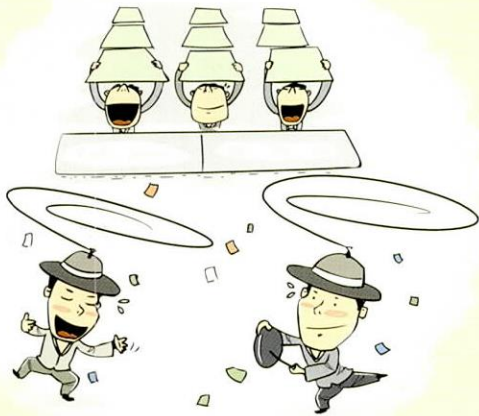
3

명절

우리나라에서의 명절이 주로 고유 민속명절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전통 민속명절 외에도 국가경축일·국제기념일 등의 사회주의 명절을 포함한다. 사회주의 관련 명절로는 국제부녀자절(3월 8일)·국제노동자절(5월 1일)·국제아동절(6월 1일)·비동맹의 날(9월 1일)·평화의 날(9월 1일) 등이 있는데, 이 날은 국가적 명절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민속명절로는 신정·구정·추석 등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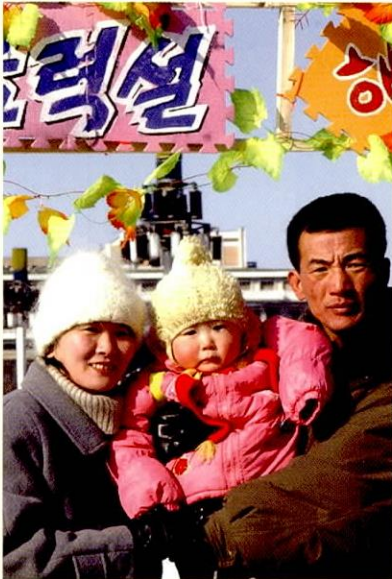
3-1. 민속 명절



북한의 민속명절은 설(1월 1일) · 음력설(음력 1월 1일) · 추석(음력 8월 15일) 등이다. 명절 앞에 '민속' 을 붙이는 것은 국가경축일 · 국제기념일등 다른 명절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북한에서 평가하는 민속명절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일정한 행사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특별한 날' 로 명절 가운데서 '주로 인민들이 즐겨 맞는 명절' 로 규정하고 있다. ⑥

설

설은 양력설과 음력설을 의미한다. 이들 설은 북한에서 추석과 함께 가장 크게 쇠는 민속명절이다. 설에는 쌀과 술·고기 등의 특별 배급이 있고, 가정에서도 만두나 떡 같은 설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설을 맞아 기념촬영하는 평양의 한 가족



설 명절 장식물을 파는 평양시내 상점

추석

추석은 설과 더불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북한에서도 민속명절 가운데 설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의 하나로 꼽는다. 추석에는 농촌은 물론 일부 도시민 가운데 차례를 지내는 풍습을 지키고 있으며, 추석날에는 거주지 시·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추석을 맞아 열린 대항소상 씨름경기대회



성묘하는 북한주민들

한식

한식은 조상 성묘날로 성묘와 차례 등의 조상숭배 전통도 여전하다. 한식은 특별한 명절이라기보다는 성묘가는 날로 인식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식을 민속명절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속명절의 하나인 수릿날을 맞이하여 열린 आय회

단오

단오(수릿날)는 봄철 파종이 끝난 다음에 '즐거 논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고 있다. 다른 민속명절보다도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는데 최근에는 그 풍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3-2. 사회주의 명절



김일성 생일 · 김정일 생일 · 국제노동자절 · 정권창립일 · 당 창건일 · 해방기념일과 헌법절 등을 가리켜 '사회주의 7대 명절' 이라고도 부르며 (여기에 양력설을 포함하여 8대 명절로 꼽기도 한다) 모두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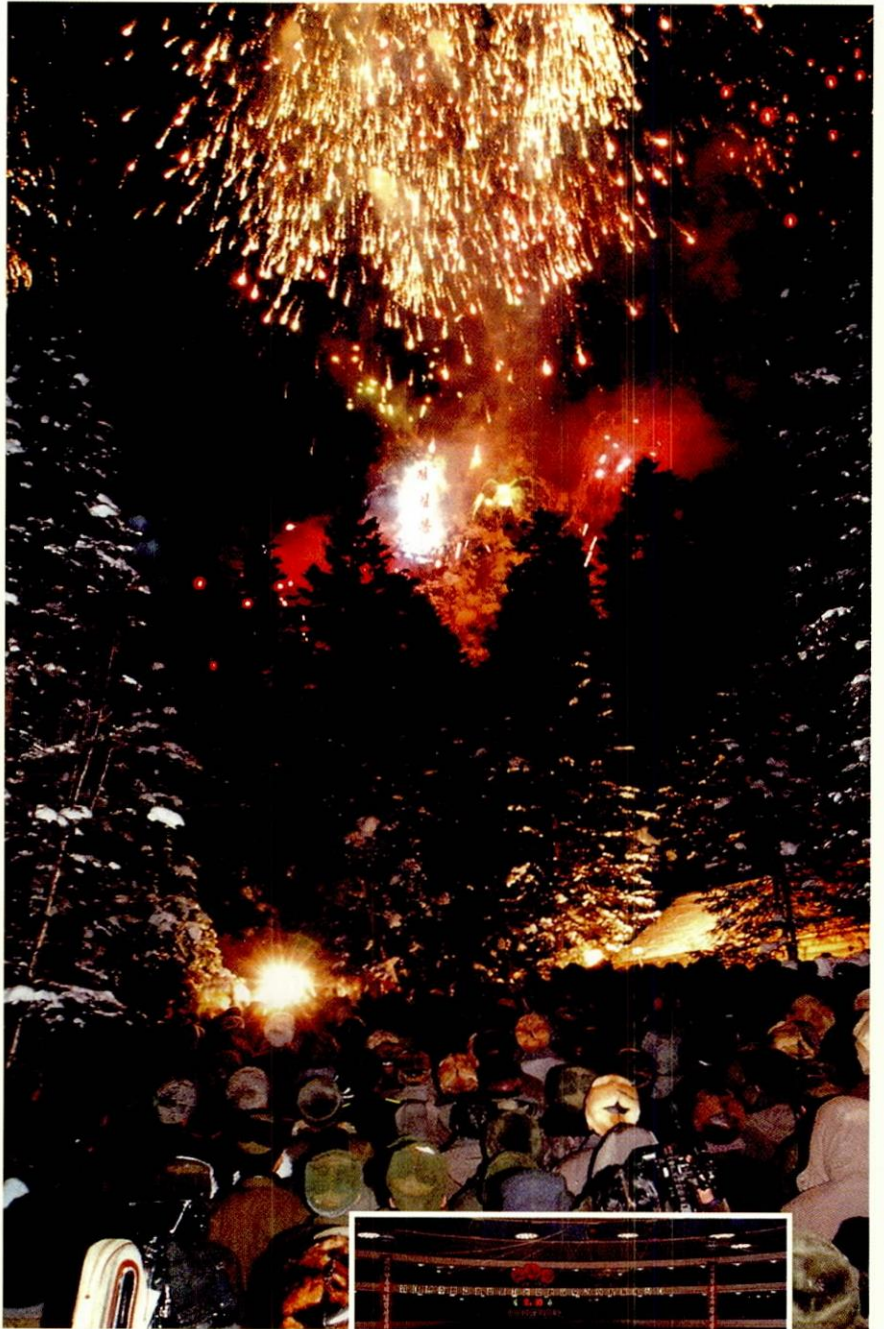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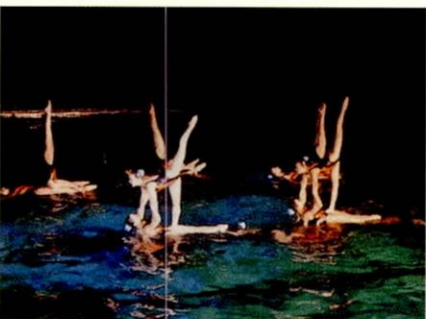
사회주의 명절 때는 배급품이 나오며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동상이나 혁명열사릉을 찾아 화환을 진정하고 참배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 날은 모두가 법정공휴일로 모든 일에서 해방된다.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 이라 불리는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이다. 이 날에는 경축 분위기에 맞추어 평양과 지방의 모든 극장에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여는 것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 집회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⑥

2월 명절

김정일의 생일인 2월 명절(2월 16일) 역시 4월 명절과 함께 '민족최대의 명절'로 불린다. 처음 '민족최대 명절'로 지정된 1995년 이후 행사 종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50여 건이었던 행사내용이 2000년에는 60여 건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80여 건에 달하는 등 점차 규모도 커지고 형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김정일 생일 관련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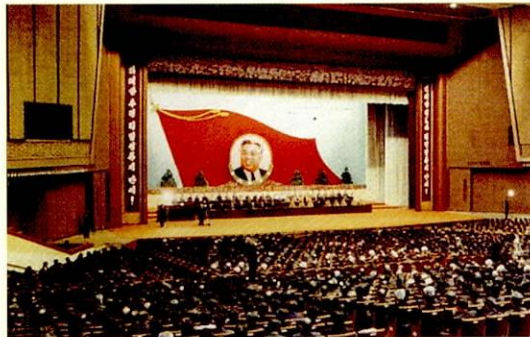
경축불꽃놀이



백두산상 국제피겨스케이팅대회

4월 명절

4월 명절은 명절중에서 최고로 치는 경축일이다. 김일성 사망 3돌인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지정하면서, '주체연호'도 공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월 명절 기념 각종 행사들



4월 명절 기념공연들



4월 명절 요리축전



기념일

명절 이외 주요 기념일로는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3월 2일), 토지개혁법령 발표일인 농업근로자절(3월 5일), 소년단 창립일(6월 6일), 공군절(8월 20일)·청년절(8월 28일), '사회주의교육체제' 발표일인 교육절(9월 5일) 등이 있다. 이 날에는 해당부문 근로자들이 기념식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보고대회의 모습

경축야회





기념일이 되면 금수산기념궁전참배와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한 각종 보고대회·축하공연·경축야회 등의 기념행사들이 열린다.



식수절 모습

국제 노동자절

1866년 5월 2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파업을 실시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실현한 이후 1989년 파리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5월 1일을 국제노동자절로 규정하고 있다. '5·1절'로 일컬어지는 국제노동자절은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지내는 명절이기도 하다. 평양 시내와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는 이 날을 기념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각종 기쁨들이 나부끼면서 축제분위기가 고조된다.



야외에서 벌어지는 국제노동자절 행사 모습

국제 아동절

국제아동절(6월 1일)에 대해서는 '1949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동맹이사회 회의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선포했으며 1950년부터 세계 진보적 여성들과 인민들이 이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아동절은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명절로 즐기는 날이고,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날은 소년단창립일인 6월 6일이다. 이런 날에는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열리는데 어린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기악연주 등을 공연하거나 달리기·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가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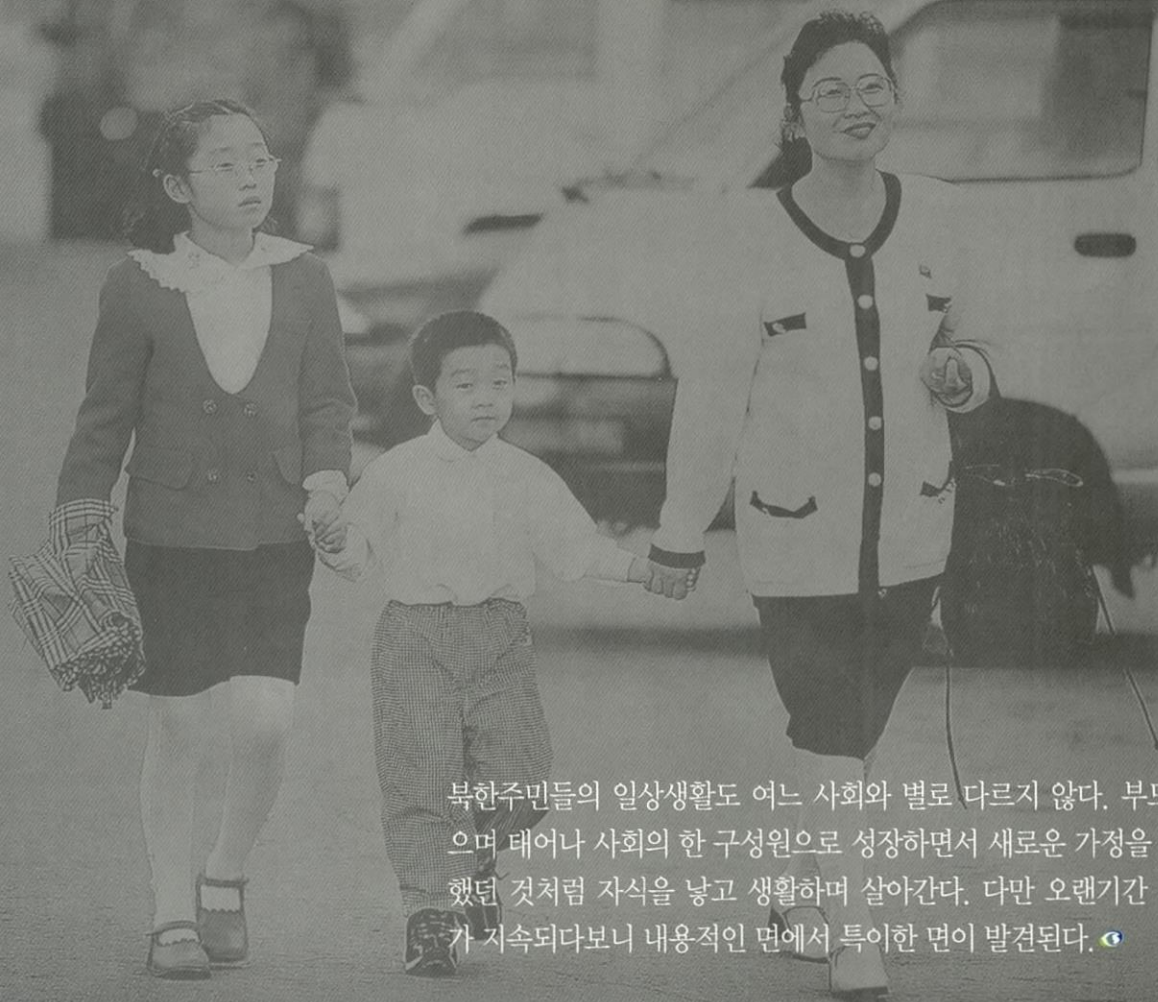



국제아동절 기념 체육대회



4

일상생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여느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했던 것처럼 자식을 낳고 생활하며 살아간다. 다만 오랜기간 집단주의 체제가 지속되다보니 내용적인 면에서 특이한 면이 발견된다. 

4-1. 생애



북한은 집단의식·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통하여 가족을 혁명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도 최근 개인성향이 강해지면서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상제에 있어서도 매장보다는 화장이 늘어나고 있다. 관혼상제에 대한 남북의 차이는 이념적인 차이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 ⑥

탄생

북한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인격체인 개인보다는 사회구성원
으로서, 혁명의 후세대로서의 의
의미가 크다.



평양산원의 신생아실

결혼

과거에는 '군·당·대' 등으로
불리는 소위 제대군인·당원·
대학졸업자 등을 배우자 1순위
로 꼽았으나,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이후 최고의 결혼상대는
'돈 잘 버는 사람'으로 경제분
야 종사자의 인기가 높다.



북한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세상동이의 결혼식



결혼식날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세상둥이

상례

장례는 보통 3일장을 기본으로 하며 종교적 의식이 금지되어 있어 양초나 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상례에 입는 상복^{喪服}은 오래 전에 없어졌고 상례복을 지어입거나 굴건제복을 하지 않고 남자는 상장^{喪章}과 검은 천을 팔에 두르고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 장례에 필요한 물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병원이나 해당 진료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비와 술 등의 물자를 관혼상제 상점에서 구입한다.

제례

제사는 1960년대 중반까지 통제를 받지 않고 지내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제사는 과소비·미신 등의 이유로 금지하였는데, 당국의 공식적 입장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후 1988년부터 추석을 비롯한 4대 민속명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사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제례 풍습은 많이 달라졌다.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는 기제와 추석제사, 한식 때의 성묘 정도이다. 성묘는 주로 추석에 이루어지는데,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올리는 풍습은 여전하다. 제사는 계수용품을 따로 구하기보다는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들로 마련하며, 지방이 없는 대신 사진을 놓고 지낸다.

4-2. 사상학습생활



스스로 정치강국·사상강국이라고 강조하듯이 사상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상학습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상교양 문제는 나이와 시간을 불문하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적용된다. ④

北 명절날 헌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는 절대적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은 물론 당창건 기념일·헌법절 등의 사회주의 명절이나 설날,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김일성동상이나 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다.



김일성 사망일을 맞아 대형초상화 앞에서 추모의 예식을 올리는 장면



선군혁명총진군대회에 참가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하는 장면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금수산기념궁전은 북한의 주요 성역지 가운데 하나이다. 주요 명절이 되면 간부들이 참배하는 것은 물론 평양에서 열리는 주요 집회의 참석자들이 단체로 참배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다.



김정일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0돌(2006년 1월)을 기념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맹세모임을 거행하는 장면

예술작품 감상발표회

문학작품 감상 역시 사상교양의 중요한 분야이다. 당에서 정한 의무상영 영화 감상과 노동신문에 실린 문학작품 해설을 보고 토론하거나 노래배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상교양 학습이 이루어진다.



영화 '당의 참된 딸' 감상발표회

혁명사적관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에 관련분야의 혁명사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져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에는 교육분야의 혁명사적관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안에는 문화분야의 현지도를 기념하는 혁명사적관이 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안에 세워진 문화성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 답사행군

혁명사적지는 '노동계급의 수령 또는 탁월한 혁명가의 혁명 활동과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지'로 백두산 일대를 비롯하여 전역에 조성되어 있다. 김일성과 관련한 혁명사적지로는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전승혁명사적지(평양시 모란봉구역)' '군자혁명사적지(평남 성천군)' '연풍혁명사적지(자강도 강계시)' '백송혁명사적지(평남 평성시)' '삼등혁명사적지(평양시 강동군)' 등이 있으며, 김정일과 관련한 혁명사적지로는 '어은혁명사적지(평양시 용성구역)' '백두산혁명사적지(량강도 일대)' '덕골혁명사적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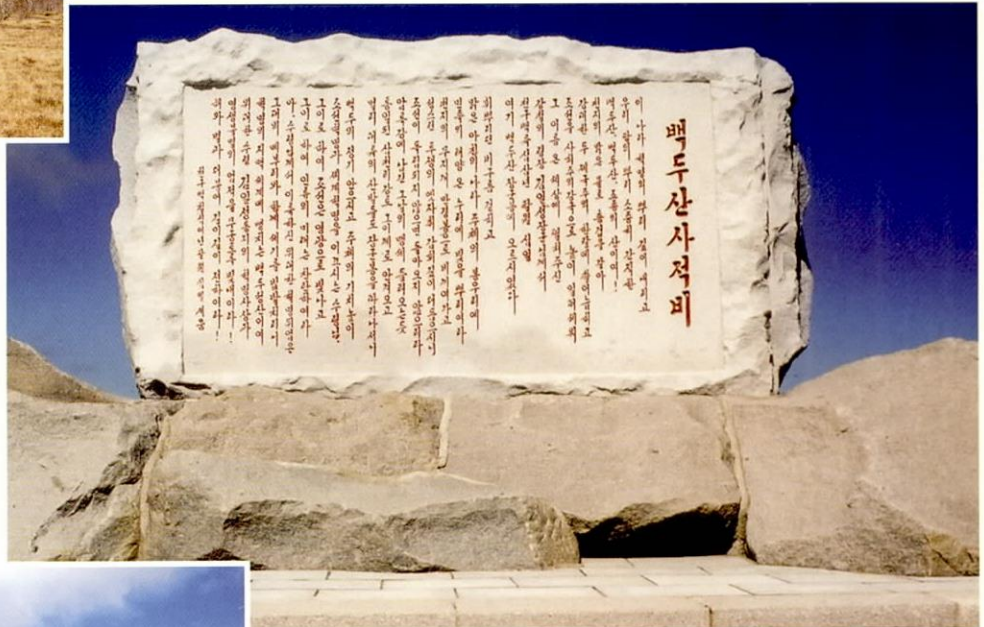


백두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

삼지연혁명사적지의 조각군상



백두산 고원에서 바라본 천지



백두산혁명사적비



혁명의 성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4-3. 생활경제



북한은 2002년 7월 국가경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임금 차별화와 임금 결정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본임금과 실적 보너스를 통해 임금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등 평균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의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농민시장을 비롯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가족 간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

거리매대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이 판매대이다. 계절에 따라 고구마와 같은 농작물이나 아이스크림·빵 등을 판매하는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리마다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거리매대

상점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시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시장적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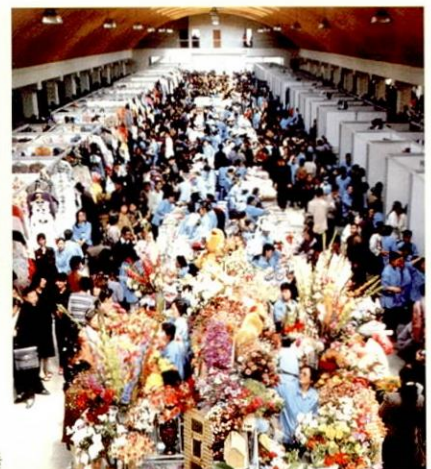
상점 내의 문구코너

통일거리시장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을 유통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행정단위에서 상설 종합시장을 개설, 공산품을 비롯하여 수입품 거래를 허용하였다. 국가는 '시장이용료' (임대료)와 '국가납부금' (수익금)을 징수하고 있다.



통일거리시장 전경



통일거리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주민들

광고

과거에는 상업광고를 볼 수 없었지만 경제 분야의 대외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시내에 상업광고판이 등장하였고, 상품의 홍보를 위한 광고도 생겨났다.



부강오토바이 회사의 광고사진



평양시내에 등장한 휘파람자동차 광고판

북 음식점

대표적인 음식점으로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비롯, 청류관·통일관·평양메기탕집·압록각 등이 있다.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은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한번은 들르는 코스가 되었다. 특색있는 음식점으로는 통일관이 유명한데, 민족 전통음식을 전문으로 한다.



동평양 단고기(개고기) 요리집



평양옥류관



평양옥류관 내부

맥주집 · 청량음료점

노래방의 경우 고려호텔이나 양각도호텔 등의 평양 시내 주요 호텔과 옥류관을 비롯한 대형음식점 · 청년중앙회관 등에 들어서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호프점도 평양 시내 여러 곳에 생겨나 퇴근길에 맥주 한 잔 하려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잦다.



평양 을밀대 청량음료점

백화점

주로 고위직 및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제1백화점과 락원백화점 등이 있다.



백화점의 주류코너

北 패션

북한 여성들의 패션은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1980년대에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차원에서 '조선옷(한복)'을 '민족옷'으로 지정하고 평양 시내와 전국에 '조선옷판매점'을 설치하였으며, '조선옷 품평회'와 '조선민족옷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90년대의 여성패션



'90년대의 남성패션

민족옷 패션쇼



모피코트를 입은 여인들



여성들의 옷차림은 종전의 획일적인 패션(단색)에서 벗어나 부분적이지만 세련되고 화사한 옷차림이 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 착용 모습

4-4. 직업세계



북한에서는 학교나 군대를 마치면 국가에서 직업을 배치한다.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학생 개개인의 성적·조직생활 평가·가족관계가 적힌 문건이 인민위원회에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어느 기업소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등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직장 배치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에 따라 '컴퓨터 조종운영기사(자동설비 관리자)' '컴퓨터 타자수(오퍼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원(프로그램 기사)' 등의 직업이 새로 나타났다. ❷

北 교통보안원

평양의 인상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가 시내 곳곳에 있는 여성도로교통원이다. 정장 스커트 차림의 여성 교통경찰인 '교통보안원' 들은 빼어난 외모와 화려한 동작으로 깊은 인상을 준다. 이들은 인민보안성의 소속인데 수신호로 차량의 교통을 인도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돕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인민보안성 소속 교통보안원



판매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경제분야에서 책임경영이 한층 강화되었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서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차등으로 지급되면서 상품의 생산 못지않게 판매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원들의 업무패턴도 역시 과거의 수동적 자세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상품 판매원



의류코너의 상품 판매원

은행원



평양 무역은행의 은행원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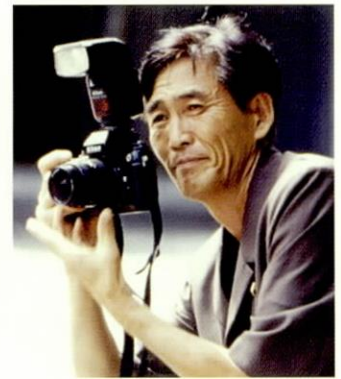
고려항공 여승무원



공항 근무자



대동강맥주공장 노동자



사진사

4-5. 주택



북한의 주택은 거주자의 편의보다는 당의 정책을 고려한 집단 거주형태가 많다. 평양·함흥·평양·순천·청진 등의 시내에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지방에는 거의 없다. 주택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하며, 원칙적으로 소유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④

아파트

북한은 신도시 개발과 1989년 평양세계 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였다. 대표적인 고층아파트 지역인 광복거리의 아파트는 원통형·Y자형·S자형·C자형의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광복거리 아파트



평양시내의 고층아파트

주택내부

주민들이 갖추어 놓은 가전제품은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다. 살림살이에 대하여 '사람이 살려면 5장 6부가 있어야 하듯이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 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나 녹음기·선풍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5장 6기를 온전히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부엌



욕실내부



평양시내 아파트 내부

4-6. 문화시설



북한은 문화를 통한 인민교양을 문화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찍부터 인민교양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시설 이용자를 고려한 생활친화적인 설계보다는 기념비적 건축을 목표로 규모가 크다. 평양의 경우 다양한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대신 각 지방 행정중심시에 세워져 있는 혁명사적관이 영화상영이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영화관

평양의 대표적인 영화관으로는 대동문영화관, 락원영화관, 개성영화관 등이 있다. 시·군 문화회관, 소년회관, 시·도 문화회관 등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



락원영화관

극장

극장은 영화관이 아니라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이나 집회 장소로도 활용된다.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동평양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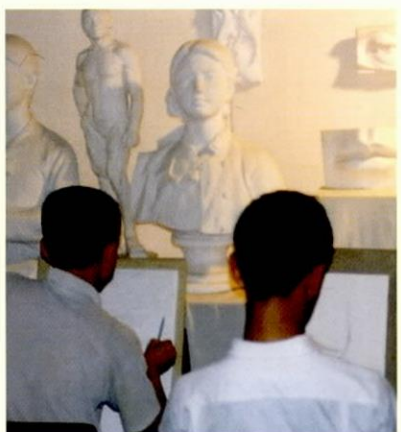


北 학생소년궁전

청소년을 위한 과외교육기관으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있다. 학생소년궁전에는 청소년들의 과외 활동을 위한 소조연습실을 비롯하여 실험실·공작 기계실·도서관·체육관·소년단 열성자실·김일성 활동 연구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규모가 큰 곳은 학생소년궁전이라 하고, 작은 곳은 학생소년회관이라 부른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정면의 상징조각상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전경



교예극장

광복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극장은 평양축전 직전인 1989년 5월 개관했다. 이 극장은 교예의 종목에 따라 관람석을 이동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총 관람석은 3천 5백석. 극장 내부에는 승강장치가 가동되어 공중곡예 및 수중곡예 시 박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양교예극장에서 공연중인 평양교예단

인민대학습당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곳으로, 모든 출판물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열람실

조선예술 영화촬영소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제작기지로 동시에 10편의 영화 촬영제작이 가능하며, 영화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거리세트장



현지지도 조각상

北 역사유적지

북한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그 나라의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주장된 이후로 민족문화 발굴과 보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지도자의 유적지 방문과 민족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포함하여 문화유산의 개건과 복원, 민속놀이의 장려 등의 정책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단장된 동명왕릉 정면



평양성이 국보1호임을 알리는 비



동명왕릉 내의 역사전시관



동명왕릉 개건기념비



동명왕릉 전경



묘향산 보현사 석탑



울밀대

경기장

체육시설로는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이 유명하다. 1989년 7월에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하여 평양시 청춘거리(옛 지명은 안골)에 종합체육단지를 건설하였다.

양각도골프장



5·1경기장



김일성종합경기장



빙상관

대동강변에서 바라본 5·1경기장 전경



4-7. 종교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인민생활에서 종교는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광복 이전까지는 불교나 기독교·천주교 등의 신자들이 상당하였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종교행사도 형식적일 뿐이다. 종교단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교직자들은 조선불교도연맹이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같이 종교연맹 소속으로 되어 있다. ⑤



기독교

기독교 신자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교회로는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는데 목사 30명, 교직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복측은 밝히고 있다.



봉수교회에서의 예배장면

천도교

천도교는 민족종교로 부각되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종교이다. 평양에 중앙교당이 있으며, 신도수는 4만명 정도라고 한다.



개천절 행사

북 불교

북한의 스님들은 사찰근무 중 양복 위에 승복을 착용하는 게 특이하다. 신도는 약 1만여명, 스님은 약 300여 명이라고 한다. 60여개 사찰 중 묘향산의 보현사와 평양 대성산의 광법사, 금강산의 표훈사 등이 유명하다.



묘향산 보현사 전경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



개성 영동사 낙성식



정릉사 정문

천주교

교황청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신부와 수녀도 아직 없다. 1988년에 완성된 장충성당은 북한 유일의 성당으로 동평양의 선교구역인 대동강 동남측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50석 규모의 회중석에 제단·제의실·성가대석·고해소·각종 성화와 성물 등을 갖추고 있다.



장충성당

기타

불교·기독교·천주교를 제외한 종교시설로는 러시아정교사원인 평양정백사원이 있다. 대동강 기슭에 자리한 정백사원은 2003년 6월에 착공, 2006년 8월에 축성식을 가졌다.



평양정백사원

4-8. 병원 · 휴양소



북한은 1960년대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의학·무상치료제·의사담당구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치료제’는 말 그대로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임금의 1%, 복지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병원에 의료장비와 약품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㉔

평양산원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여성종합병원으로 1979년에 착공되어 1980년 3월에 준공되었다. 부드러운 곡선의 건물 양식과 조형으로 평양을 대표하는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평양산원 전경

병원외래접수실



산부인과 내부

치료실



기타 병원

북한에는 총 6,700여개의 병원과 3만여명의 의사가 있으며, 진료소를 비롯하여 군^현병원·구역병원·시도 병원이 있다. 경제난 이후 병원에는 기본적인 의료 장비를 비롯하여 치료약품이 크게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모습

휴양소

주요 온천이나 명산에는 휴양소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 휴양지로는 천지원휴양지·마전휴양지(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동) 등이 있으며, 금강산·칠보산 등지에도 휴양소가 있다.



천지원휴양지

북한은 각 지역 명승지에 공장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정·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다.



룡강온천휴양소



삼청광산 노동자 정양소



삼지연호텔



삼지연 김정숙휴양소

